

한국불교미술 독일로 가다

선 스페이스+, 7월 21일까지 한·독 순회전... 독일서는 9월 6~21일 열려



①전윤미 - 석가모니후불도 ②이해기 - 성등정각 ③박경귀 - Link Buddha ④손광석 - 수월관음도 ⑤윤원선 - 약사여래도 ⑥이승주 - 연기(緣起)

부처를 그리워하는 작가들이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려 한국과 독일에서 불교미술 순회전을 연다.

스페이스+에서는 한·독 불교미술 순회전 '붓다를 그리다-Seeing Buddha/Not-Buddha'를 기획했다.

이 전시는 불교미술 작가의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불교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새로운 불교미술을 모색하며 문화 포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올 해는 불화·불상조각·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7명의 작가들이 베를린의 '아시아-태평양 포럼' 주간에 공식 참여해 서울과 베를린을 순회하며 한국불교미술의 독창성과 현재를 소개한다.

십수년간 부처님 일생을 주제로 작업해 온 이해기 작가는 '성등정각'에서 감지에 금, 은으로 부처님의 성도일을 재현한다. 부처님이 성도하는 장면에서 셋째대신 보름달을 넣어 장엄함을 느끼게 한다.

전윤미 작가는 '석가모니후불도'에서

존으로해 <범화경>의 변상을 암축·묘사했다. 보색대비의 화려한 조선 후기의 석가모니후불도를 흑백사진으로 찍은 듯한 느낌으로 묘사하고 금선으로 문양을 그려 넣어 일방적인 불화와는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아시아-태평양 포럼'은 베를린 시청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간의 문화, 예술, 학술 포럼으로 2011년에는 9월 6~17일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 행사를 함께 기획해 동양불교(일본, 중국,

티베트)와 차별화된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미술을 더욱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소개해 우리의 불교문화와 선사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7월 1~21일 삼성동 갤러리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서울전에서는 불화의 전통 기법 중 하나인 금니선묘화와 올해 초조대장경 판각100년의 해를 맞아 목각 경판을 인출하는 체험을 주말 오후 3~6시 경험해 볼 수 있다.

9월 6~21일 주독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관에서 열리는 베를린전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주최해 현장·경진 스님의 강연, 흥신자 선생의 명상춤, 박경귀 작가의 불화 시연, 베르너 사체 교수의 명상화 시연, 이승주 작가의 금니 선묘화 체험, 범오 스님의 인경 체험, 불교 영화 상영 등 많은 문화행사를 함께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미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를 주최한 스페이스+관계자는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독일 현지 분위기에 편승해 모든 만물의 조화와 공존을 주시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표현한 한국의 불교미술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인류와 자연의 공존, 또 인간-생명의 삶이 어떻게 영위에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2-0732 이나은 기자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②

매혹적인 인물, 제석

제석과 함께 떠나는 신화여행의 주인공은 당연히 제석이다. 제석은 고대 인도의 리그베다(Rig Veda) 찬가에 등장하는 천신으로 인도 뿐 아니라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이란 등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고대 인도의 신으로서 본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인드라(Indra), 발리어로는 사카(Sakka)로 불린다. 한자로는 인다라(因陀羅)라고 음역(音譯)되기도 하며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 귀의하여 불법의 수호신이 되었다. 그 후 경전에서는 흔히 석제환인(釋提桓因陀羅), 석가제바인다라(釋迦提婆因陀羅)로 음역했는데 이를 줄여서 석제환인, 제석전이라 했다.

고대 인도의 신이었던 속한 이유는 불교에 융화되면서 탁월한 적응력으로 불법이 전파되는 지역마다 이미 존재해왔던 신앙 속 정점에 해당하는 하늘의 주인, 신들의 왕을 대체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옥황상제,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의 아버지 즉 직계선조들을 모두 석제환인(釋提桓因)이라고 하며 제석전과 동일시하며 숭배하였다.

제석은 하늘의 주인이지만 그가 사는 곳은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제법 주소지가 명확하다. 제석이 머무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 선경성이다. 도리천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즐거움과 아름다움만 가득한 곳이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다시 태어난 곳일 뿐 아니라, 부처님께 복을 짓고 나서 죽은 영혼들이 주로 자주 태어나는 낙원 같은 곳으로 묘사되곤 한다.

제석이 살고 있는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00년에 해당하는데 그곳에 사는 천신(天神)들의 수명은 1000살이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생에 가까운 세월을 살지만 수명은 유한하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여 자식을 두기도 하고 유회를 한다. 제석의 전생은 인간이었다. 제우스가 벼락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처럼 제석 역시 번개를 다스리는 뇌신(雷神)으로 악마를 쳐부수는데 애용하는 무기는 금강

저(金剛杵)이다.

제석은 인간이 바라보았을 때 가장 매혹적인 인물로서 남자에게는 댁고 싶고 되고 싶은 이상형이며, 여자에게는 갖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리그베다(Rig Veda)로, 제석에 대한 찬가가 약 1/4 을 차지하고 있다. 제석은 흔히 다갈색 피부에 긴 머리칼, 거대한 체격과 탄탄한 몸매, 잘생긴 얼굴에 신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까지 갖춘 젊은 미남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아이라바타'라는 하얀 코끼리를 타고 다닌다. 또한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 다섯 가지 욕심이 치성 한 욕계(欲界)의 주인답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 음악과 미녀 등 향락을 즐길 줄 아는 남신(男神)이다.

제석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신이지만 불교에 수용된 후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쓰는 등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특히 인간보다 더욱 '복'을 받는 일에 연연해하며 자신이 제석임을 들켜지 않고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인간으로 변신을 하는 등의 익살맞은 모습은 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제석의 또 다른 매력은 그가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다. 부처님과 만나기 전, 제석의 과거는 제법 거칠다. 제석이 거저 도리천의 주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었다. 아수라와의 격렬한 전쟁을 거쳐 천신의 자리를 쟁취한 제석의 과거는 부처님을 만난 후 부드럽게 바뀐 모습과 대비돼 그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마다 항상 도리천의 대가족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등장하여 부처님의 위엄을 돋보이게 하고, 악귀를 물리치며 불법을 수호하는 그는 과연 신이 되기 전 어떤 인물이었을까.

조민기 작가 · 칼럼리스트



신화 김영수

한지를 붙이고 뜯다보니 연꽃이...

한국화를 그리는 김춘옥 작가(65)는 한지를 손으로 뜯어내기도 하고 찢아서 달라붙은 종이에 물을 먹인 다음 기구를 이용해 뜯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흔적들이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 온다. 작가는 수묵이 종이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광경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층처럼 종이를 집



자연-관계석(2010년)

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작가는 종이를 대어씌운 배경하고 그 위에 수묵과 채색을 하는 식으로 두께를 쌓은

다음 그것을 다시 한 장씩 겹쳐내다보면 꽃봉오리도 만들고 연꽃과 연잎도 만든다. 이른바 테플라주 기법으로 혁신적인 한국화를 실현해 낸 중진작가 김춘옥의 개인전이 7월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필립강 갤러리에서 열린다.

전통성에 바탕을 두되 한국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현대화와 세계화를 함께 이루어냈다는 평을 얻고 있는 작가의 대작위주의 신작 17점이 선보여진다.

김 작가는 "대상을 눈앞에 보이는 존재, 직접적인 관계로만 보지 않고 다른 사물과의 연관 속에서 간접적으로 누리는 미감이 유현이다"며 "어떤 대상과 사물이든 그것을 독립적이고 고정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고 반드시 상호관련성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02)517-9014 이나은 기자

풍경소리 32집 발매

9곡 수록, 반주 음악도 함께 실려

좋은벗풍경소리(회장 자용)가 찬불동요 창작곡 32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은 푸른 나무들의 시원한 그늘처럼 여름날 더위를 식혀줄 싱그러운 노래들이 가득 담겨있다.

보덕학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새 음반에는 △보물찾기 △꽃 피는 부처님 세상 △꽃마음 부처님 △착한 사람들 △연등 부처님 △부처님 세상 △부처님을 닮았네 △작은 생명 △님이 오신날 등 9곡이 수록됐다.

또한 앨범에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반주 음악도 함께 실었다.

좋은벗풍경소리는 1994년 찬불동요 창작곡집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 왔다.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의 교재로 활용되며 일선 어린이 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로 사용된다.

이나은 기자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능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흥왕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자해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있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를 왕 및 사업번창과 신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사뵈는 금강삼고저는 금니

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능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강,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모금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드림, 문방사무소, 인경,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점,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세계와 워홀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한글세대·영어세대를 위한 유식학 출간!’

Mind-Only Science

오직 마음일 뿐인 유식학의 세계

지은이 고 목

신간

연락처
도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유식사상연구회 T.055-353-6142

신국판 300쪽 W12,000

www.mirrao.com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깊이가 역할을 하고 있다.

*불조쟁맥 증,영,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학 두 영,중,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